

부상

호랑이 '고난의 8월'

날씨



3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0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더블헤더 1차전이 열렸다. KIA 3회 말 1사 2루에서 7번 박찬호의 적시타 때 2루 주자 나지완이 홈으로 파고들어 득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무리' 전상현, 종아리 근육통으로 엔트리 말소
시즌초부터 류지혁·김선빈·브룩스·나주환 등
부상→복귀 반복...전력 약화에 팀 성적 들쭉날쭉
선발·불펜 과부하...KT와 더블헤더 1차전 5-8 패

부상 바람이 내야를 넘어 마운드를 덮었다. KIA 타이거즈는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와 더블헤더를 치렀다. 폭염 경보 속 하루에 18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뼈대한 일정이었지만 경기 전 마운드에 변동이 생겼다. 마무리 전상현이 왼쪽 종아리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빠지고 대신 양승철이 등목됐다. 바로 다음 주 복귀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이지만 KIA에서는 아쉬운 부상의 연속이다. KIA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에이스 브룩스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팀내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브룩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 턴(Turn) 쉬어가게 된 것이다. 내야 부상 병동 상황도 좋지 못했다. 류지혁, 김선빈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호흡을 고르고 있는 사이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김태

진도 아직 1군 전력에 합류하지 못하고 2군 경기를 통해 워밍업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나주환의 부상이 이어졌다. 허리 통증으로 빠졌던 베테랑 나주환이 26일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귀 하루 만에 허리 디스크로 다시 명단에서 빠졌다. 한 주의 마지막 날에는 전상현이 시즌 처음 자리를 비우면서 KIA의 희망이었던 '박하전문' (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이 해체됐다. KIA는 지난해 이들로 구성된 막강 필승조를 자랑했으나. 올 시즌에도 이들은 필승조로 의기 투합했지만 좌완 하준영이 지난 5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먼저 전력에서 이탈했다. 8월 5일에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던 사이드암 박준표가 오른쪽 약지 인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13일에는 올 시즌 초반까지 마무리 역

할을 수행했던 우완 문경찬이 NC와의 트레이드로 사이드암 박준표와 함께 이적하면서 '박하전문'에서 전상현 홀로 남았다. 전상현은 균열 속 제구 난조로 힘겨운 8월을 보냈던 전상현까지 30일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박하전문'이 공중분해 됐다. 전상현은 휴식 뒤 바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박준표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29일 "박준표가 다음 주에 불펜 피칭을 소화하고 다다음 주에 랜잡으면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근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곧 돌아오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선발의 이닝 고된도 불펜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KIA는 30일 더블헤더 1차전에 고졸 2년 차 좌완 김기훈을 내세웠다. 윌리엄스 감독은 경기 전 90-100구 정도의 피칭을 기대했지만 76구에서 김기훈의 등판이 끝났다. 김기훈이 소화한 이닝은 3이닝에 불과했고 6실점(5자책점)이 남았다. KIA는 양승철과 김현수 노아웃은 6이닝을 처리하면서 불펜 전력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초반 싸움에서 밀려 5-8로 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낮 33도 폭염·소나기·태풍 '복병' 예측불허 일정에 컨디션 관리 '난항'

믿을 수 없는 날씨, 힘겨운 일정이다.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에 복병이 생겼다. 바로 예측불허 날씨다. 지난 18일부터 프로야구는 2연전 일정을 시작했다. 무더위 속 이동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KIA의 피로도가 쌓였다. 여기에 날씨까지 KIA의 예를 태우고 있다. 지난 29일 KT 위즈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감독이 '언빌리버블'을 외쳤다. 날씨에 대한 질문에 "믿을 수 없다"며 윌리엄스 감독이 웃음을 보였다. 이날 KIA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진 비에 훈련을 소화하지는 못했다. 깜짝 폭우에 '언빌리버블'을 이야기한 윌리엄스 감독은 "태풍이 언제 오는지 모르나? 우리 부산 갈 때 맞춰서 온다. 더블헤더할 때 온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했다.

KIA는 오는 9월 1-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이어 3-4일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4일에는 앞선 우천 취소 경기 일정까지 더해 더블헤더를 치러야 한다. 하필 KIA의 원정 일정에 맞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 지역을 지난 전망이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은 "괜찮다. 언젠가는 경기를 치겠다"고 웃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힘겨운 2연전 일정에 이어지는 부상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날씨까지 윌리엄스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쌓여가면서 순위 싸움을 위한 계산이 복잡해졌다. 한편 KIA는 29일 경기가 바로 취소되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2시부터 챔피언스필드 개장 후 첫 더블헤더를 치렀다. KIA가 안방에서 더블헤더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8년 만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셋별' 김한별

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연장 1차전서 동기 이재경 놀러

김한별(24·사진)이 '데뷔 2년 차 동기' 이재경(21)을 연장전에서 밀어내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한별은 30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클럽(파72·7209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헤지스골프 KPGA 오픈(총상금 5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쓸어 담으며 8연타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타파 267타를 기록한 김한별은 이날 7타를 줄인 이재경과 동타를 이루고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연장 1차전. 이재경이 버디 퍼트를 놓친 반면, 김한별은 버디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김한별은 버디 퍼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주먹을 불끈 쥐고 "우승했다!"고 외치며 포효했다. 김한별은 우승 상금 1억원을 획득했다. 김한별과 이재경은 지난해 코리안투어에 나란히 데뷔한 동기다. 이재경은 지난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첫 승을 거두고 신인상(명출상)까지 거머쥐며 먼저 앞서나갔다. 김한별은 지난해에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공동 11위, 올해는 지난 7월 KPGA 오픈 연장전에서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날 헤지스골프 KPGA 오픈 최종일에도 이재경이 공동 선두에서, 김한별은 1타 차 공동 3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김한별이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7개를 몰아치며 선두 자리를 빼앗았다. 하지만 후반 들어 김한별이 버디 1개로 추축했다. 반면 전반 버디 4개를 잡았던 이재경이 후반에 버디 3개를 추가해 김한별을 따라잡고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연장전에서도 이재경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듯했다. 먼저 티샷을 친 이재경은 페어웨이 중앙에 공을 잘 떨어뜨렸지만, 김한별의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지점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두 번째 샷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김한별의 공이 홀 앞 가까이에서 더 잘 붙었다. 이재경은 과감한 퍼트를 했지만 버디를 놓쳤다. 김한별은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생애 첫 우승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



'상심' 류현진

볼티모어전, 수비 실수로 2자책점 떠안아...경기후 1자책점으로 정정

6이닝 호투에도 3승 무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평균자책점(ERA)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MLB 공식 기록원이 29일(한국시간)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남긴 류현진의 자책점을 다시 조정해서다. 30일 MLB닷컴의 박스 스코어와 게임 데이를 보면, 류현진의 자책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줄었다. 류현진은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2실점 했다. 2-0으로 앞선 6회 2사 만루에서 라이언 마운트캐슬의 땅볼을 견어낸 3루수 트레이비스 쇼의 실책성 1루 송구 탓에 2점을 줬다. 이 경기의 기록원은 처음에는 쇼의 송구 실책으로 판단해 류현진에게 자책점을 아예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운트캐슬의 타구를 내야 안타로 재판정하고, 쇼의 송구 실책을 지웠다. 류현진이 안타를 맞고 2점을 준 것으로 기록을 재구성한 셈이다. 실점은 모두 류현진의 자책점이 됐다. 경기를 지켜본 현지 언론의 저명 기사는 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고, 팬들도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내야 안타로 보기에 모호했고, 쇼의 1루 원바운



드 송구를 실책이 아니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경기 후 "구단과 투수코치가 알아서 잘해 줄 것"이라며 구단이 기록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를 곧바로 수용한 것인지, MLB닷컴의 기록은 내야 안타에 송구 실책을 가미한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 정리하면, 내야 안타로 3루 주자가 득점한 것은 류현진의 자책점이고, 3루수 송구 실책에 따른 2루 주자의 득점은 비자책점으로 기록원은 새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16(37이닝 13자책점)에서 2.92(37이닝 12자책점)로 낮아졌다. 8월 월간 평균자책점도 1.61에서 1.29(28이닝 4자책점)로 더욱더 좋아졌다. 토론토 구단은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한글로 "이번달 류현진 선수는 환상적이었습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연합뉴스